

투데이칼럼

‘풍년의 기쁨, 안전이 함께할 때 완성’

가을은 농촌의 손길이 가장 분주한 계절입니다. 들녘마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곳곳에서는 수확의 기쁨이 한창입니다. 논과 밭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이 시기, 농민들의 얼굴에는 풍요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 사고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작업 중 전도나 끼임,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운기 전도, 탈곡기 끼임, 트랙터 추락 등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농기계는 구조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고령의 농업인 비율이 높아 조작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445건이었습니다. 이 중 영농이 집중되는 봄·가을철에만 285건(64.0%)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기인 가을에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김 승 현
남원소방서장

한층 높아집니다. 농작업이 몰리는 시기일수록 피로가 누적되고, “조금만 더 하자”는 마음이 방심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첫째,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제동장치, 조향장치, 유압장치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비를 게을리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사로와 논둑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조수석에 동승자를 태우

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넷째, 조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 작업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음주 후 농기계 운전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원소방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마을회관과 영농교육장 등을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전도나 끼임 사고를 가정한 현장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숙달하고, 농민 스스로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 매체와 현수막, 홍보물 등을 활용해 농기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마을

단위의 자율 안전점검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농민 스스로의 경각심입니다. 주변 이웃과 함께 농작업 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기계의 이상 유무를 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시 119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위치정보를 가족이나 이웃과 공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촌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터전입니다. 안전이 지켜질 때 비로소 풍년의 결실이 완성됩니다. 수확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원소방서는 앞으로도 농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독자제언

가을철 농번기, 교통사고 예방 이렇게 하세요

가을철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고 야간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최근 농촌에서는 경운기 등 농기계 가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과 농산물 운반 차량이 늘어나면서 농촌 지역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해가 빨리 지는 시기이므로 농기계 운전자는 야간에 가급적 운행을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전조등·미등·좌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농기계 뒤편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면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농로 외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로 가장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무단

횡단·역주행을 절대 금해야 한다. 차량 점검으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추가로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금하는 등 보행신호를 준수하고, 해가 짧아 지면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밝은 계통의 옷이나 반지 재질이 부착된 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 농번기는 풍요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이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안전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최다인 교항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각종 예방접종 받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한 보건 센터에서 3세 미만 팔레스타인 영유아들이 유니세프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제공하는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설

동학농민혁명 미술제

2025년 동학농민혁명 미술제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전관에서 열렸다. 예술은 현실을 초월하거나 이상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 미술제는 동학농민이라는 주제를 오늘에 되살려보기 위해 열렸다. 한편 지난해 202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혁명의 기념공간을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과 파랑새관, 전주시립완산도서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국제포럼에서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완산도서관을 전면 개보수해 조성한 ‘파랑새관’의 정

식 개관식과 더불어 파랑새관 개관 특별기념전도 함께 진행됐다. 파랑새관은 기존 완산도서관 본관 건물을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체험·교육·도서관 기능을 모두 갖춘 역사박물관화공간으로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파랑새관 2층은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역사에 관한 도서관 및 전시공간으로 꾸몄다. 3층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특별기획으로 구성했다. 24일간 이어진 전시에는 전국작가 63명이 참여해 △생명공동체와 농촌문제 △강흥전투의 이소사 장군 △육전전투 등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각자의 시각과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사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지역중 하나인 전주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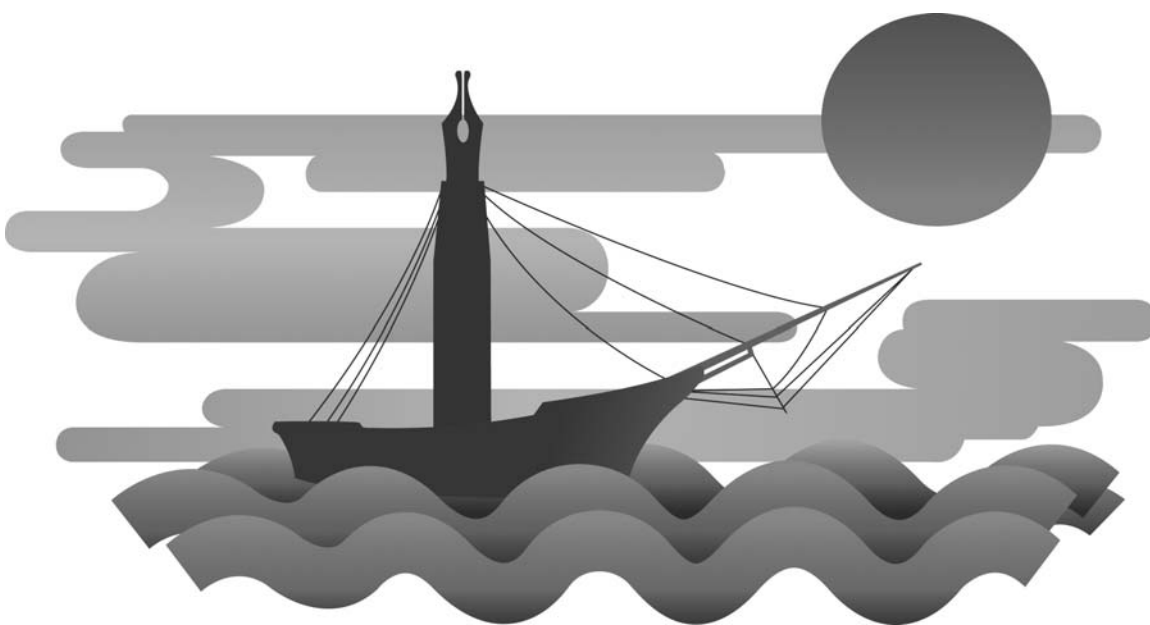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송가인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학교 ‘음악2’ 교과서에 트롯이란 장르 명칭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등재된 가운데, 송가인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정식 수록됐다. 송가인 소속사에 따르면 송가인을 대표하는 곡 ‘가인이어라’가 최근 출판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됐다. ‘트롯’이란 장르 역시 음악 교과서 최초로 등재됐다. 교과서에는 ‘가인이어라’의 “떠는 음, 꺾는 음, 점점 세계, 점점 여러개를 약보에 표시하고, 트롯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 보자”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트롯 장르의 특징과 창법을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게 됐다. 이번 등재는 국악(관소리)를 전공하고, 여전히 정통 트롯이란 정체성을 가져가는 송가인의 대표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송가인은 TV조선 ‘미스트롯’을 통해 트롯 전성기를 열었다. 송가인(宋歌人)의 본명은 조은심(曹銀心, 1986년생)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출신이다. 중학교 2학년 때 관소리를 시작하였고 관소리 명창인 박금희(본명: 박방금)로부터 수궁가, 춘향가를 사사하였다. 그는 진도군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이자 무속인인 송순단의 딸로 태어났다. 예명은 송가인(宋歌人)이다. 예명은 어머니의 성씨에서 딴 ‘송(宋)’, 노래를 뜻하는 ‘가(歌)’, 사람을 뜻하는 ‘인(人)’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TV조선에서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